



리얼사랑

www.kma.go.kr Vol.383

2013. May **5**

풍경이 있는 날씨촌
봄 햇살 따라 떠나는 가족여행

날씨 에세이
날씨와 쇼핑의 오묘한 관계

열린마당
스트레스 아웃! 힐링 홈런!

2030 솔로탈출
솔직담백한 결혼이야기



성산일출봉과 무지개



'2012 기상사진전' 장려상 이승건 님 작품
장대비가 퍼붓던 날,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성산일출봉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났습니다.

무지개는 햇빛이 물방울 속을 지나면서
굴절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무지개는 항상 햇빛 반대쪽에 생기므로 아침엔
서쪽에서 나타나고, 저녁엔 동쪽에서 나타납니다.

May 5



Contents

KMA Special Issue

- 풍경이 있는 날씨촌 봄 햇살 따라 떠나는 가족여행 · 02
- 100만개의 별과 함께한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 04
- 날씨 에세이 봄날의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 06
- 날씨와 쇼핑의 오묘한 관계 · 08

KMA About

- 열린마당 '전국 기후 한마당 워크숍'에 가다 · 10
- 영종도에서 따뜻한 봄을 맞다 · 12
- 아빠와 아들, '기상가족'이 되다 · 13
- 작은 나눔, 큰 기쁨 · 14
- 스트레스 아웃! 힐링 홈런! · 16
- 날씨를 전하는 동두천기상대 지키미 · 18
- '경성측후소 옛터'에 표지석을 설치하자 · 20
- 나의 꿈 '기상청' · 22
- 포커스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GISC 서울'... · 24
- 2030 슬로탈출 솔직담백한 결혼이야기 · 26

KMA Hope

- 기상가족 이야기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28
- 날씨만화 이상파랑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봄 햇살 따라 떠나는 가족여행

편집진

따뜻한 햇살과 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봄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기도 좋다. 자, 기상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알고 나면 더 가고 싶고, 한번가면 또 보고 싶은 기상명소를 찾아 떠나보자.



관악산기상레이더

상큼발랄 꽃 여행,

지리산 바래봉 · 소백산 연화봉 철쭉

산의 모습이 마치 나무로 만든 승려들의 밥그릇인 '발우'를 엮어놓은 것 같다하여 '바래봉'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로 꼽힌다. 해마다 4월 하순에 산 아래에서 피기 시작한 철쭉이 5월 하순에는 해발고도 1,167m 지점까지 올라오며 시차를 두고 피기 시작한다. 운봉읍 삼산마을부터 시작되는 바래봉 둘레길은 걷기가 좋다. 소백산은 5월 초순에는 비로봉을 비롯한 국망봉, 연화봉에 진달래가 피고 5월 하순에는 철쭉이 피어 한 달 내내 장관을 이룬다. 진달래와 철쭉이 혼동된다면,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는 것은 진달래, 꽃과 잎이 같이 피는 것은 철쭉으로 구분하면 쉽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풍경이 아름다운 기상관서,

관악산기상레이더

서울 관악산 꼭대기에 우뚝 솟아있는, 축구공처럼 희고 둥근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기상레이더인 관악산기상레이더다. 1969년 11월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지난 40여 년간 한국 레이더 기상관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부근(해발 637.4m)에 위치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경 240km 영역을 레이다로 관측하기에, 당연히 관악산 정상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곳이다. 운이 좋으면 육안으로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2009년 6월 홍보관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래 23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조선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권유로 지은 암자인 연주암에서 10여 분 거리. 관악산기상레이더에서 바라보는 절벽 위의 암자 풍경은 또 색다른 느낌이다. 경기 과천시 지하동길 64.

신비한 기상현상의 명소, 서귀포 영도폭포

제주도 말로 '영'은 큰 절벽 위의 언덕을, '도'는 입을 뜻한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영도폭포'는 큰 절벽 입구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폭포는 제주올레 7코스에 포함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숨겨진 비경이다. 영도폭포는 평소에는 폭포수를 볼 수 없다가, 70mm 이상의 비가 와야만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여주어 감탄을 자아낸다. 따라서 영도폭포의 폭포수를 구경하려면 행운이 따라야 한다. 많은 비가 내리다 그친 틈을 타 영도폭포를 찾는 것이 폭포수의 신비로운 절경을 즐기며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이다. 행운이 더 따른다면 폭포수에 걸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영도폭포는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월산마을에서 북서쪽으로 900m 떨어진 약근천 상류에 위치한다.



서귀포 영도폭포

기상 체험학습여행,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과학체험공원

2007년 3월에 개관한 이곳은 연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곳에는 기상청 최초의 기상레이더와 해양기상관측 부이 등 10여 종의 기상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대전지방기상청 내부에 있는 기상홍보관에는 기상청의 업무와 기상과학 발전사가 전시되어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작동 및 원리 이해, 토네이도 모의발생기,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상과학을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과학체험공원



〈추천도서〉 기상명소를 찾아가는 기상천외 체험여행지

전국 방방곡곡의 기상과 관련된 명소들을 봄·여름의 꽃 여행, 가을·겨울의 추억 여행, 숨겨진 비경을 찾는 감동 여행, 신비한

기상현상을 포착하는 출사 여행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역을 다양한 주제로 알려주는 기상관광지도도 흥미를 더한다. 책 내용보기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기상청소개 > 홍보실 > 기상명물지도

100만개의 별과 함께한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2004년 5월,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의 히말라야 알
룽강(8505m) 등반과정을 취재할 때다. 높은 곳에
서 2개월 넘게 지내다 보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
게 되는데, 때마침 가수 이문세님이 격려차 베이스
캠프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숨도 쉬기 어려운 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의 ‘히말라야 산상음악회’를
열어주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이문세님’이 ‘문세형
님’이 되면서, 그를 주축으로 한 「설레발산악회」 회
원이 되어 국내외 산을 매주 찾게 됐다.

“여행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이번 여행
의 모토(Motto)다. 발 닿는데서 자고, 발 닿는 곳으
로 가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오자.”

「설레발산악회」는 매년 1월이면 문세형님의 스케줄에
맞춰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 ‘힐링 여행’을 떠난다.
올해는 ‘캠퍼밴을 이용한 자유여행’을 콘셉트로 잡아,
뉴질랜드 남섬인 크라이스처치를 찾았다.



정용권 / ‘엠투어’ 대표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캠핑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캠퍼밴 여행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여행은 캠핑문화가 발달한 뉴질랜드나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캠퍼밴 여행은 발길 닿는 곳과 머물고자 하는 곳 모두가 숙소가 된다. 인원수에 맞는 침구세트부터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가스스토브와 도마, 칼, 수저 등의 모든 주방용품 또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음식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이동 중에도 편안히 누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텐트와 침낭을 가져가면, 캠퍼밴 밖의 넓은 공간에서 100만개의 별을 이불 삼아 잘 수도 있다.

6인승 캠퍼밴을 공항에서 픽업 후, 남섬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퀸스타운(Queenstown)으로 향했다. 퀸스타운은 와카티푸 호수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고 카약, 래프팅, 스카이다이빙, MTB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자유로운 곳이다. 상주인구가 5,000명뿐인데 항시 25,000~40,0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니 그 인기가 대단하다.

젊음이 넘치는 도시를 천천히 둘러본 후,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10점을 받았다는 퍼그버거(Fergburger)를 한입 베어 물며 활보하다 보면, 활동적인 운동에 도전하고 싶다는 '필'이 확 꽃힌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깊은 계곡에서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는 래프팅이다. 특히 이곳의 계곡물은 물살이 엄청 세서 난이도가 레벨 6까지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었다.

5mm 슈트로 무장을 한 후 보트에 올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이드의 구령에 따라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을 맞춘다. 래프팅은 팀원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보트가 앞으로 나가지 않거나 바위에 부딪칠 수 있고, 심할 경우 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은 운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한국에서 매주 만나 산행을 해서인지 호흡이 착착 맞았다. '앞으로, 뒤로'라는 구령에 따라 전진하는데, 앞에 하얗게 포말을 일으키는 계곡물이 보였다. 말로만 듣던 난이도 레벨 6의 구간이 나타난 것이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거친 물살 속으로 배를 젓는 순간,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엄청난 쾌감이 몰려왔다. 무척이나 멋지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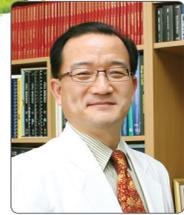
래프팅을 마치고 홀리데이 파크(Holiday park)를 찾았다. 이곳은 캠퍼밴 안에 있는 주방이나 샤워시설, 그리고 여행 동안 발생한 오물 등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좋은 여행을 둘러본 후 저녁이 되면 이곳에 머물러, 차량에 물을 채우고 밀린 빨래도 하며 유용하게 보낼 수 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스파게티 해줄게!”

문세형님이 홀리데이 파크 안에 있는 주방에 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더니 푹푹 맛난 음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테이블 한 쪽엔 육즙 가득한 뉴질랜드 소고기가 익어가고 손에는 향기로운 와인 이 들려있었다. 100만개의 별이 떠있는 공간에서 맛보는 저녁식사!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봄날의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요즘 같이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이면, 가만히 집에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들이, 야유회, 조깅 등 어느 하나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호흡곤란이나 심한 재채기, 그리고 수돗물처럼 나오는 콧물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비염이나 천식, 심한 경우엔 아토피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오재원 /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대기 중에는 여러 식물에서 생산되는 많은 꽃가루가 존재한다. 이는 화초, 고초, 목초, 잡초, 수목 등에서 생성된다. 이들 꽃가루는 원래 사람을 괴롭히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암수교배 때문에 존재한다. 이 꽃가루들 중 일부가 인체에 영향을 미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 모든 꽃가루가 그런 것은 아니라 각각의 수정 생리에 따라 인체의 질병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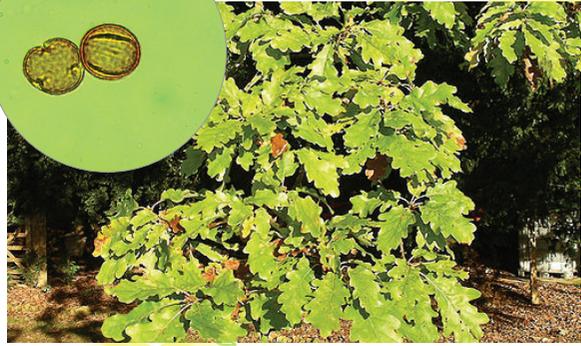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식물은 수정방법에 따라 크게 충매화(蟲媒花)와 풍매화(風媒花)로 나눌 수 있다. 장미, 백합, 목련 등과 같은 충매화는 향기나 아름다운 꽃으로 곤충을 유혹하여 꽃가루를 전파시키므로 꽃가루의 생산량이 적다. 또한 분자량이 크고 무거우며, 공기 중에 잘 부유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적다. 정원 사나 원예가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반면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등과 같은 풍매화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전파되며 생산량이 많다. 또한 작고 가벼우며, 공기주머니 등 꽃가루 내에 특수한 구조들이 있어서 공기 중에 잘 날아다니고 오랫동안 떠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체내에 들어오거나 피부에 붙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은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위나 고수부지, 아파트 주변 유희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도시나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알레르기 환자가 원인식물을 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은 심산유곡에 서식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된 토양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잡초류 중에서도 돼지풀이나 단풍잎돼지풀 등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관이 많아 공해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잘 자라기에, 이들이 대표적인 가을철 알레르기 유발식물이 되었다.



자작나무 꽃가루



참나무 꽃가루

꽃가루(pollen; 花粉)로 유발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화분병, 혹은 화분증(꽃가루병; pollinosis)이라 부른다. 관련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관지 천식 및 기타 위장관 질환 등이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의 15~20%가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21세기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로 알레르기가 대두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여, 이 질환을 환경공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미 각국에서 인식되어 알레르기성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일반인과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그 심각성을 홍보 및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이 바쁘게 진행되었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였고, 현재는 유병률이 선진국과 유사하게 되었다.

알레르기 유발식물의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크기에 따라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정도는 원인화분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들 화분에 다량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는 있다.

알레르기의 발생은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진 않고 계절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 원인식물의 화분이 공중에 날리는 시기를 알고 있는 것

이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꽃가루는 우리나라에서 집먼지 진드기 다음으로 흔한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의 관리뿐 아니라, 가로수 등의 식물조성 관리에도 꽃가루 연구가 중요하다.

끝으로, 혹시라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면 다음 생활수칙의 실천을 권한다.

꽃가루 알레르기 생활수칙

- ① 꽃가루 유행시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특히 꽃가루가 새벽이나 아침(오전 5시~10시)에 많이 날리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때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 ② 밖에서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실내로 들어간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입자는 아주 미세해 옷에 붙어있기가 쉽다.
- ③ 외출 후엔 손과 발, 얼굴, 눈을 깨끗이 씻는다. 눈에 미세한 꽃가루가 들어갔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닦아 눈병을 예방한다.
- ④ 창문은 닫아둔다. 집안에 있어도 창문 틈새를 통해 실내로 꽃가루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면 에어컨을 사용한다. 자동차의 창문도 꼭 닫는다.
- ⑤ 빨래는 집안에서 말린다. 밖에서 빨래를 말리면 꽃가루가 옷에 묻을 확률이 높다.
- ⑥ 감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이나 가려움증, 재채기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도 60~80%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므로 주의 깊게 살핀 뒤 전문의와 상담을 한다.
- ⑦ 과도한 약 복용은 삼간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



날씨와 쇼핑의 오묘한 관계



이지나 / (주)롯데홈쇼핑 작가

전화기만으로 손쉽게 빠르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쇼핑이다. 이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품을 편성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됐다. 그 중 날씨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미리 날씨데이터를 활용하면 매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하루 종일 비나 눈이 오면 ‘오늘 대박나겠네’라는 말을 하곤 한다. 홈쇼핑의 주 고객 중 하나인 주부들이 비나 추위로 외출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홈쇼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때문이다. 반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 나들이를 가거나 외출이 잦아지기 때문에 시청률 감소와 함께 매출도 줄어든다. 이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봄에는 꽃, 가을엔 단풍과 전쟁한다’는 말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날씨변화에 따라 상품의 인기도 달라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때 아웃도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 건조한 날씨엔 보습제품이 인기를 끈다. 황사현상이 일어날 시즌에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 환경관련 상품이 인기가 많아진다. 여름에는 모두의 고민인 살과의 전쟁 때문에 다이어트와 헬스용품이 강세고, 겨울에는 계절의 변화를 고려해 스노우 체인이나 히터가 인기다. 그래서 프로그램 편성에는 기상정보가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편성을 좌우하는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할 땐 날씨의 변화를 이용해 시즌 상품을 기획하거나 신상품 출시 시기 등을 조율한다. 예를 들어, 폭염이 계속될 때는 에어컨이나 쿨매트, 냉풍기 등의 더위와 관련된 상품을 편성하고 장마철에는 매트나 침구류 등의 상품을 편성한다. 또한 기상정보를 미리 받아 황사, 폭설, 폭우, 열대야, 한파 등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관련 상품을 기획하거나 출시한다. 요즘엔 봄이 금세 사라지고 곧장 무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름 상품의 편성을 앞당겨 대폭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기후에 따라 소비자의 동향과 성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각 계절은 물론, 눈이 오는 날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따라서도 유통되는 상품이 달라진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의 변화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전략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미 편성이 끝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정보에 레인부츠 기획전을 급하게 편성하기도 한다. 한파주의보나 폭설예보가 있을 경우엔 장보러 나가기 힘든 주부들을 위해, 김치나 쌀 등의 생식품과 조리도구를 판매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편성해 특수 기상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를 수용하도록 한다.



고객의 심리상태와 연결된 날씨

홈쇼핑에서 날씨는 그날 매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눈이나 비의 양에 따라 그 날 그 날의 매출이 변화한다. 그래서 날씨의 변화에 민감한 고객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쇼핑호스트의 역할이다. 상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쇼핑호스트의 한 마디에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홈쇼핑뿐만 아니라 일반 TV프로그램에서도, 또 라디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라디오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 틀어주는 음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날씨는 쇼핑호스트의 적절한 멘트와 어우러져, 고객의 소비심리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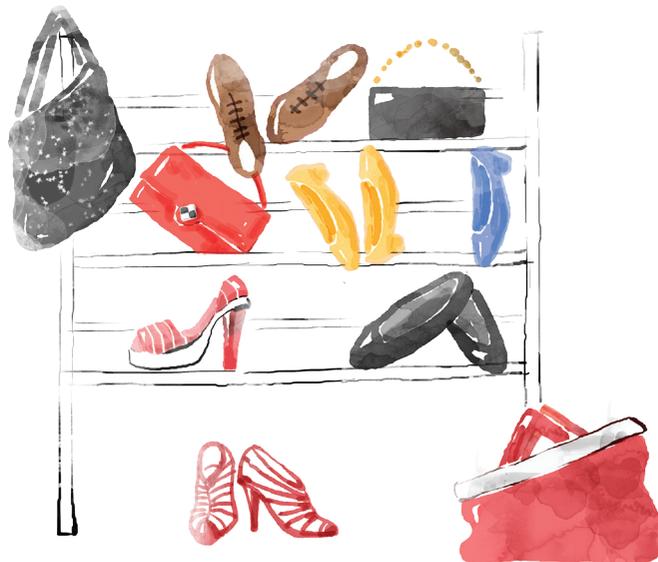
계절에 맞는 상품을 편성하다가도, 가끔은 역시즌을 이용해 남아있던 상품을 파격적인 조건에 판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여름에 모피나 양털부츠, 방한복 등 겨울에 사려고 하면 이미 품절인 인기상품을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쿨매트나 에어컨 등의 냉방용품을 팔기도 한다. 이는 더운 날씨엔 추운 날씨를 그리워하고, 추운 날씨엔 더운 날씨를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계절을 기다리고, 느낄 수 있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날씨를 활용한 현명한 소비

이러한 역시즌 상품의 편성은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서 좋고, 업체에서는 재고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상부상조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는 70~80%까지도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라면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날씨가 궂으면 매출이 대략 10% 가량 늘어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보통의 경우 악천후가 시작되면 홈쇼핑의 매출은 5~10% 정도 높아지고, 정확한 날씨예측에 따라 많게는 20% 정도 상승하는 훌륭한 효과도 볼 수 있다. 날씨는 이제 단순히 춥고 덥고를 넘어,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신기한 상품에 놀랐고, 다음에는 파격적인 조건과 구성에 놀랐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충동구매보다는 꼭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을 잘 파악해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



‘전국 기후 한마당 워크숍’에 가다

벚꽃이 활짝 핀 4월의 어느 날, APEC 기후센터(APCC) 식구들을 태운 차가 지리산으로 향했다. 하동을 지나 구례로 가면서 화창한 하늘 아래 하얀 배꽃이 우리를 반기고 있으니, 비록 밤은 아니지만 고려 말 문신 이조년 선생의 ‘이화에 월백하고’라는 시구가 절로 떠올랐다. ‘2013년 전국 기후 한마당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의 기후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날이니만큼, 날짜 선정에도 큰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수희 / APCC

지리산 한화리조트에 도착하여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자,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되었다. 권원태 기후과학국장님과 정진승 APCC 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후정책·서비스·연구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후업무를 발굴하기 위한 세션이 진행되었다.

APCC에서는 기후예측, 기후분석, 농업·수자원·극한기후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연구, 그리고 기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연구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기후서비스 사업의 사례로 부산과 제주지방기상청에서 기후정보를 각 지역에 특화하여 서비스한 사례도 발표하였다.





약 4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은 결국 끝이 났지만, 이번 워크숍은 한자리에 모두 모인 기후관계자들에게 ‘기상기후 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기후 정보 활용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리산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사명이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은 테이블 곳곳에서 이 화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화개장터로 향하던 길은 여전히 청명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에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채소와 열매들로 가득했다. 특히 고구마, 사과, 배의 맛이 한 번에 난다는 야콘은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이였다. 그리고 하동 차는 ‘왕의 녹차’로 불릴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다.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 있으면서 지리산 일대의 산간 마을들을 이어주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화개장터. 기상기후 융합을 논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과 묘하게 일치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 일정의 마지막 장소인 남원 두부마을로 가기 위한 여정은 다소 힘겨웠다. 화개장터에서 남원시까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느라 다들 고생 좀 했을 것이다. 산을 넘어가는 동안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지만, S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 때문에 멀미가 심하게 올라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남원의 맛있는 두부정식을 온전히 즐길 수만은 없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닌 것 같았다.

남원시 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두부마을에서의 중식을 끝으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이 났다. 남원까지 와서 점심만 먹고 가기가 너무 아쉬웠던 우리는 광한루에 잠깐 들르기로 했다. 가는 길에도 역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마 모두들 소년 소녀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느꼈으리라. 3년 전에 개인적으로 광한루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연못 속 잉어가 그때보다 살이 더 통통하게 오른 듯해 보이는 건 착각이었을까. 여전히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고스란히 받아먹는 수십 마리의 덩치 큰 잉어들을 보며 한참이나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광한루는 1434년에 만들어졌고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을 1638년에 인조가 재건하였다고 하는데, 오래된 역사만큼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기품이 느껴졌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고, APCC 식구들 역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1박 2일간의 소중한 경험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면서 기후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또 APCC 직원으로서 이번 워크숍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됐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모임의 특성에 맞게 단순한 모임이 아닌,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뜻 깊은 여정이었나 생각한다.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 참가기

영종도에서 따뜻한 봄을 맞다



최윤정 / SBS 기상캐스터



꿈과 희망의 골든벨

우연히 TV를 보다가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을 인터뷰하러 다니는 김수영씨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KBS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 실업계 고교생 최초로 골든벨을 올렸고, 이후 꿈과 희망을 갖고 큰 날개를 펼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3월 23일, 나또한 그동안 바랐던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전해서, 진정으로 따뜻한 봄을 느껴보자'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바로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항공기상청에서 주관했던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 대회에서 말이다.

퀴즈로 모두가 하나 되다

영종도 삼목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대회장은 예상보다 큰 규모와 다양한 모자, 번호판 등이 준비되어 있어 마치 KBS의 <도전 골든벨>을 그

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거기에 아름다운 기상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기상캐스터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어 대회의 흥을 더해줬다.

예선에서는 객관식 문제, 본선에서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기상캐스터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출제하는 영상퀴즈도 선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문제들을 영종도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막힘없이 정답을 써내려가는 모습에 '이러다 우승자가 나오려면 밤을 새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힘찬 파이팅에 대회장의 열기는 무척 뜨거웠다. 특히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즉우기를 만든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문종'이라고 정답을 쓴 한 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들이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났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놀라워했다.

새로운 시도로 모두가 통하다

드디어 치열한 경쟁 뒤에 우승팀이 가려졌다. 우승한 아버지가 아들을 오랫동안 껴안으며 소감을 말하는 중에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그 모습을 본 나 역시 우리네 아버지들의 사랑이 떠올라 마음이 울컥해졌다.

이번 대회에선 관람객 퀴즈와 행운권 추첨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행운권에 당첨되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다가, 당첨된 후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미소가 절로 번졌다.

내가 이렇게 행운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날씨는 여전히 꽃샘 추위가 심술을 부렸지만,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봄날이었다.

아빠와 아들, ‘기상가족’이 되다



김경열 / 인천초 4학년 준하씨

살면서 가장 가슴 떨렸던 순간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합의를 무엇이라 하는가요?” 마지막 두 팀에게 주어진 문제였다. 사회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떨리는 순간이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답을 쓴 후, 제발 정답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얀 보드판을 들어올렸다. “정답은...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SBS 최윤정 기상캐스터의 예쁜 목소리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 부자는 무척이나 좋아서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내가 살면서 제일 떨리더라!”

초등학교 4학년인 열한 살 아들에게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같은 꿈으로 함께했던 시간들

영종도는 서울과 달리 아이들과 함께 연극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에 아들 녀석이 가져온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 참가 신청서는 우리 가족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항상 TV에서 재밌게 시청하던 골든벨 퀴즈,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 분명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나는 아들이 즐겨보는 어린이용 과학책을 가지고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준비를 했다. 처음엔 전철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자니 주위의 시선도 의식돼서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기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재밌고 특히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날아드는 아들의 문제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철공부’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아빠와 아들’팀인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열심히 대회준비를 했다.

이젠 우리도 어엿한 ‘기상가족’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은 우리 가족에게 우승이라는 기쁨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TV뉴스의 일기예보가 색다른 재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아들 녀석도 요즘은 뉴스를 보며 어려운 기상용어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곤 한다.

이렇게 이번 골든벨 대회는 우리 가족을 어엿한 ‘기상가족’으로 거듭나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선물해준 항공기상청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상청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이대성 / 진도기상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연말이나 명절이 다가올 즈음이면 봉사 내지는 위문활동을 하곤 한다. 대부분 자발적 봉사가 아닌 상위기관의 지시나 실적을 위한 강제성이 동반된 의무적 봉사활동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나면 느끼는 감정은 개운치 못하다는 걸 공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봉사를 하게 되면 본연의 순수함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 감정은 도움을 받는 이에게도 전해져 서로가 불편해질 것은 당연하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 또한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의무감으로 진도노인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점심배식이어서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배식봉사는 처음 해보기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막상 배식이 시작되니 힘들긴 했다. 어르신들은 왜 이리도 많이 식사를 하러 오시는지, 설 명절 전이라 그런 것 같았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영양사님이 “평소에는 150명 정도가 식당을 찾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200명 정도 오시는 거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셨다. 직원들 모두 힘들다는 말은 없으나 분명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익숙지 않은 일인데,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니 실수도 생기고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바빠지는 기색이었다. 식판을 분주히 식탁에 놓아드리고, 부족한 반찬도 갖다드리고, 어르신들이 부탁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잔반을 처리하는 일 등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되니 바쁠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들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구나 싶다. 위문활동이라며 돈 봉투만 스윽 건네고 돌아올 때의 씩씩함은 찾을 수 없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몸으로 돕고 나니 확실히 보람이 느껴졌다. “고맙네” 하시며 손을 꼬옥 잡아주셨던 할머니, 등을 툭툭 쳐 주시며 미소 짓던 할아버지,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시던 분, 식사 내내 불평불만만 늘어놓으시던 분 모두가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또 한편으로는 진도기상대 직원들이 이렇게 화합된 적이 있었는가 싶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다. 체육활동 시간이나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와는 다르게, 무언가 끈끈한 정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 무척이나 기분 좋았다.

직원들 모두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꼈는지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 도움을 드리자는 의견이 모아져, 이젠 매달 한 번씩 진도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번갈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 회원으로 등록되어 자연스럽게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 매달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Voluntarism)’이란 개인 및 단체의 자발

적 참여, 대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강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직원을 강압적으로 동원하진 않는다. 복지관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적건 많건 복지관 직원들,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 어디 가서 이런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예향(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고을)의 고장’ 진도는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문화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인식에 스며있는 곳이다. 우리고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행복하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또 있을까 싶다.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 물론 지나친 목표를 잡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봉사나 노동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성공의 보람도 찾고 자신도 지지 않을 수 있다.

스트레스 아웃!
힐링 홈런!

원효성 / 광주청 예보과

프로야구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우리 광주지방기상청은 활기와 생동감이 넘친다. 바로 건너편 무등야구장에 있는 광주시민들의 응원 합성과 열기가 이곳 청사까지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세계 기상학의 날' 기념 초청강연을 부탁하기 위해 기아타이거즈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기아타이거즈 홍보팀이죠? 팀장님 계시나요?”
“일본전지훈련 중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답을 듣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긴 일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던가! 몇 차례 계속된 나의 간절한 부탁 끝에 그곳 홍보팀 차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OK 승낙! 야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드디어 통했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고 설렘다.

기아타이거즈 홍보팀의 허권 차장님이 '날씨와 야구'를 주제로 한 강연은 150여 명의 직원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 날씨와 야구경기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후, 무등야구장에 상세날씨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기아타이거즈를 찾게 되었다.

사실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나이에 '인기 선수 사인볼 하나를 주시겠지!' 라는 사심 반, 설렘 반으로 기아타이거즈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로 차장님과 금세 친해져서 조심스럽게 사인볼과 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흔쾌히 청장님이 시구와 조인식을 해보자고 하셨다. 더욱이 원래 단체장들이 시구를 하려면 기관 홍보의 목적으로 200석 이상의 표를 사야하는데, 기념시구를 무료로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기쁜 마음을 안고, 며칠 후에 있을 LG트윈스와의 홈경기를 기다리며 신속히 계획을 세워나갔다.

치킨과 음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응원피켓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한쪽에서는 기상이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이벤트를 구상하느라 여기저기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관람을 위하여 35석을 예매하고, 담당별 임무를 분장한 후 4월 16일에 있을 행사만 기다렸다. 모든 것은 정말 완벽해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주간예보에 충청도까지 비가 들어가 있고, 전라도는 구름 많음으로 표시돼 있는데 신뢰되는 낮음이 아닌가. 예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행사일의 날씨를 예의주시하였다. '기상청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려는 듯, 결국 전날엔 경기 당일 21시 타임에 비가 예보되었다.



7회 말 기아타이거즈 무사 만루 위기에 몰린 상황! 하늘에서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기아의 한 선수가 에러를 하면서 결국 LG에게 대량실점을 하였다. 비가 굵어지더니 준비해온 피켓이 비에 젖고 기상은 우왕좌왕하여, 우리 직원들은 홍보현수막을 감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위 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정말 창피하고, 모든 언론에 보도될 기사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물론, 다행히 꿈이었다.

스트레스와 함께 눈을 떠보니, 행사 당일 아침이었다. 날씨는 무척이나 쾌청하고 좋았다. 스마트폰을 켜서 동네예보를 포커에서 히든카드를 보듯이 보았다. 예보는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21시에 비가 들어가 있었다. 아무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기상이와 이벤트할 때 팬들에게 우산을 나누어주자고 건의하여 홍보용 기념우산도 준비하였다. 두둥~ 드디어 조인식 후 오픈카를 타고 광주청장님이 등장해, 시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이 흐렸지만, 경기는 홈팀이 점수를 내면서 관중석은 함성과 열기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날씨 관련 응원문구를 함께 외쳤다. 재미난 날씨문구 응원에 주위의 팬들도 우리가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하나가 되어 응원했다. 그래선지 여기저기서 방송에 나왔다는 전화를 많이도 받았다.

이날은 팬들도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장외홈런으로 날린 듯 시원하였다. 이때 당연 인기 만점은 우리의 마스코트인 기상이었다. 홈팀이 공격할 때 호돌이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우산을 나누어주는 등의 이벤트로 팬들을 즐겁게 하였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줄이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도 누렸다.

축제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갔고, 홈팀인 기아타이거즈가 5:2로 승리하자 여기저기서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목이 쉬었고 다리에 힘도 풀렸지만, 한결같이 입가의 미소는 떠나지 않았다. 모두들 참 즐거웠지만, 마스코트 기상은 아이들에게 공격당하고 호돌이와 헤드뱅잉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 글을 통하여 기상이 마스코트를 한 문은수 주무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스트레스 아웃, 힐링 홈런! 녹색의 그라운드가 싱그러운 5월, 가족과 함께 야구장으로 떠나보자!



날씨를 전하는 동두천기상대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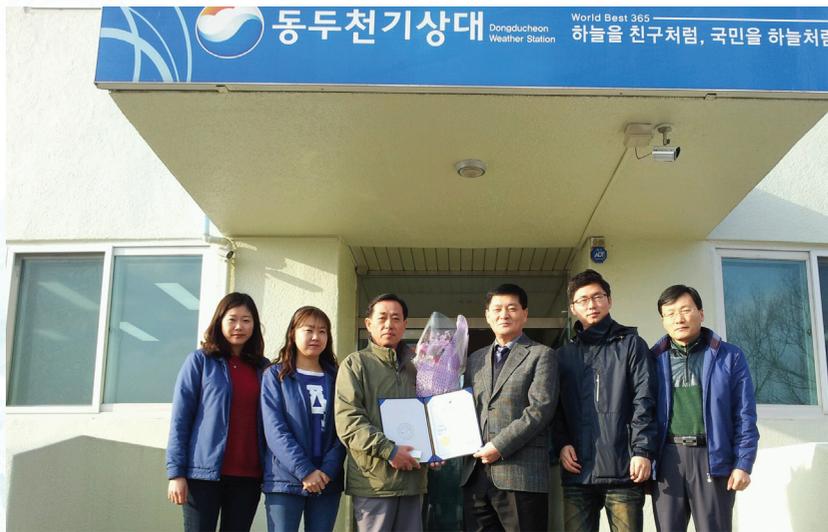
김형배 / 동두천기상대

기상대 경비근무를 시작한지 벌써 4년차가 되었다. 처음엔 기상대라는 곳이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이젠 굼직한 업무는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알게 될수록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두천에 살면서도 기상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동안 홍보가 없었나?’, ‘기상청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걸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날씨예보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예보는 매일 밤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를 통해 안내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상청 모든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물질적인 것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겐,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상정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주변의 지인들에게 먼저 기상대 업무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의 주요 관심대상인 날씨예보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상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니 다짜고짜 내일의 날씨를 묻는 분들이 있어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젠 미리 예보를 체크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를 걸어 날씨를 묻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방송보다는 가까이 있는 기상대가 더 믿음직스럽지 않겠냐며 꼭 확인하는 분들도 있고 예보가 맞았다, 틀렸다며 점검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예보사’로 불리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여름날, 날씨가 쾌청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다. 비가 그치고 나니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날씨가 왜 이래~”
 “글썸 맞습니다. 이렇게 맑다가 순식간에 비가 오니 신기하죠?”
 “그래, 신도 아닌데 어찌 알겠나. 수고하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보가 틀렸다 싶으면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 곤욕을 치를 때가 있었는데, 이젠 정확해진 예보만큼 사람들도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며,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기상청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야간근무를 하는 분들을 보면, 밤새 쉬지도 못하

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안쓰러울 때도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슈퍼컴퓨터가 편안히 예보를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상청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정확한 예보를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 기상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나 또한 더 열심히 기상청을 홍보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이런 나의 작은 마음이 기상청 직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항상 정확한 예보,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기상청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인 이곳 동두천기상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무척이나 감사하다. 든직한 대장님을 비롯해, 아들과 딸 같은 직원들의 젊은 마음도 함께할 수 있는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경성측후소 옛터’에 표지석을 설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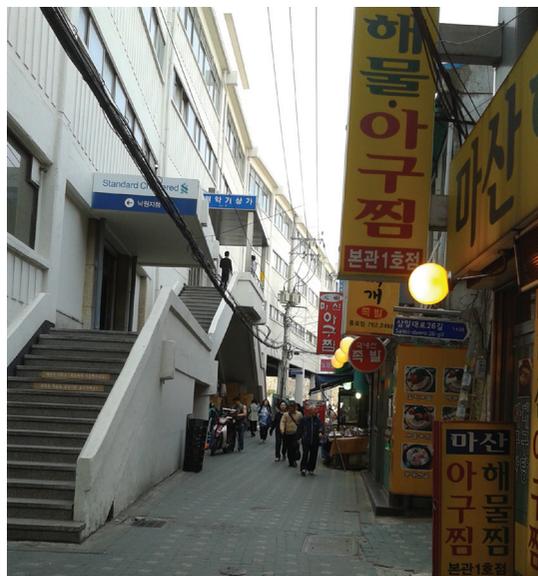
오용해 / 기상청

산을 오르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무척이나 시원했다. 이 계곡물은 어느 땅속, 어느 샘물에서 시작해 이곳의 나와 만나게 된 걸까? 흔적 없이 흘러가는 계곡물이라 해도, 그 시작과 과정의 아픔 또한 없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언제 시작했고 어디를 돌아 여기로 왔는지, 그 표지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1913년 1월부터 1932년 10월까지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에는 경성측후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송월동이 근현대 기상역사의 산실이 되었다. 그 당시 경성측후소가 있던 곳은 낙원동 어디쯤일지, 그리고 그 주변의 관측환경은 또 어떠한지가 궁금해졌다.

대한제국 경성부(京城府) 자료와 기존의 기상청 자료를 연계하면, 경성측후소 옛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77(삼일대로 26길 11)에 있었으며 관측환경은 북위 37° 34', 동경 126° 59'이다. 관측장소 해발고도는 29.2m이고 관측점 지표고도는 7.0m, 해발고도는 36.2m, 풍향풍속계 지표고도는 11.5m, 기압계 지표고도는 2.1m이었다. 필자는 조선시대 서운관 터(現 기상청 본청)를 찾아 2001년 3월호 기상청 소식지(現 하늘사랑)에 ‘관상감 옛터 변천사’를 기고한 적이 있다. 그 후 낙원동 경성측후소 터를 조사하던 중에 다행히도 일제강점기 경성지도를 얻을 수 있어서 기존의 기상청 자료와 연계하여 실마리를 풀어갔다.

경성측후소 옛터를 찾아서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잘 설명된 표지석을 만들어, 사람들이 “아,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다. 경성측후소는 낙원동에 소재한 궁터인 대빈궁지(大嬪宮趾)에서 1913년 1월부터 관측업무를



낙원악기상가 입구



① 일제강점기 경성지도 ② 교동소학교 ③ 조광조 집터

주요하고 인천기상대에선 본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30년 1월 1일~1932년 10월 31일의 자료를 확인하면 궁지 내에서 업무공간의 이동이 있었고, 1932년 11월부터 송월동으로 이전하였다. 낙원동 경성측후소와 관련한 관측환경, 관측원본 등은 2008년 12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 중이다. 당시 낙원동 경성측후소 부근의 관측환경을 살펴보면 북쪽에 인접하여 교동보통학교, 학교북쪽 담장은 이준公(李俊烈士/헤이그 밀사)저택과 접하고, 남쪽에는 파고다공원, 종로 큰길을 따라 전차길이 있었다. 경성측후소 남서대로변에는 청년회(YMCA), 종로경찰서가 있었으며 종로2가 보신각(鐘樓)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한울타리 안에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창경궁 안에 동물원과 박물관이 있고, 창덕궁에는 왕가업무의 사무실인 이왕직(李王職)을 두었는데, 끝내 비원(秘苑)으로 명칭을 격하하였다. 급기야 일제는 땅을 파서 궁궐을 가로지르는 도로(現 원서동 서울대학 병원~

창덕궁 정문)를 만들어 국기 단혈(國氣 斷穴)의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

1932년 11월 1일에 송월동으로 이전한 경성측후소가 기상청 시대를 전개했는데, 1998년부터는 신대방동에서 국내의 기상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송월동에서는 서울지역 날씨, 기후의 대표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계속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송월동 경성측후소 노장기준 해발고도는 85.5m, 관측점 지표고도는 6.5m, 풍향풍속계 지표고도는 11.5m, 기압계 지표고도는 1.5m이다.

성삼문 생가 터, 훈련도감 옛터 등으로 우리나라 여러 곳에는 옛터에 관한 표지석을 설치하여 그 뜻을 기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기상인도 낙원동 경성측후소 옛터를 조사하여, 관련기관(서울특별시청, 종로구청)과 협의해 표지석 설치 추진으로 선배의 흔적을 상고하고 후손과의 공감마당도 마련하였으면 한다.

나의 꿈 '기상청'



최정목 / 춘천기상대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내 귀에 날씨예보가 들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아침이었는데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설마 비가 오겠어?'란 생각을 했는데, 오후가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쏟아졌다. 그 순간 '예보관'이라는 직업이 꼭 마법사 같았다.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싶어진 난, 그때부터 기상청을 꿈꾸기 시작했다.

작년 3월, 기상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기분전환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순간, 정말 기뻐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잊고 평평 울고 말았다. '드디어 내 꿈에 한 걸음 다가갔구나!'라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합격소식을 전해드리러 교수님께 인사를 갔었다. 그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진짜 기상인이 됐구나. 앞으로 평생 공부해야한다.”

앗! 이제 지긋지긋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 생각했는데, 평생 공부를 해야 하다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신규자 교육연수를 받으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평생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어색한 정장을 입고, 처음 교육연수를 간 날은 '꿈의 기상청 입사'라는 생각보다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걱정만 가득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다르게 교육 내내 즐거운 일이 많았다. 나와 입사동기들은 극기 훈련과 여러 교육들을 받으면서 동기애를 쌓아갔고, 기상청 업무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조별과제를 통해, 개인이 맡은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배우며 교육연수를 마무리했다.



신규자 교육수료식



시보해제 기념 떡 나눔



위) 소양호 상고대 / 아래) 인제빙어축제 체험

작년 11월 27일에 드디어 기다리던 임용이 됐다. 내 첫 직장은 소양강 처녀, 닭갈비, 막국수, ITX-청춘 열차로 유명한 춘천으로 결정되었다. 처음 발령 전화를 받았을 땐 꿈만 같았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집을 떠나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걱정이 커져 갔다. 내 꿈보다는 맡은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내 이 다짐은 며칠 후에 시작된 눈 관측과 함께 사라졌다.

내가 춘천에서 처음 관측한 눈은 대설이었는데, 쉬는 날에 출근하면서까지 적설 관측법을 배웠는데도 평평 쌓이는 눈에 그만 지치고 말았다. 그날 퇴근길에 예보관님께서 풀죽어 있는 내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고 말씀해주셨다. 이 한 마디에 자

신감이 생긴 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의암호가 있어서, 겨울철 영하의 날씨 속에서 호수와 어우러진 상고대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호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안개는 잠시 시정이 나빠졌다가 금방 호전되기도 하고, 어느새 춘천 시내를 덮어버리는 등 신기한 기상현상 관측의 즐거움을 더해줬다. 특히 올해는 내 신고식을 하는 듯 눈이 자주 내려서, 평년값인 30일보다 많은 82일 동안 관측 장소에 눈이 쌓였고, 12월 아침 최저 기온은 극값을 경신했다.

한편, 강원도의 1월은 곳곳에서 겨울철 축제가 진행되어 그 기간에 맞춰 기상지원을 했다. 이 기상지원으로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상청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춘천에 임용되었을 땐 추운 겨울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벌써 꽃이 활짝 핀 봄이 되었다. 아직 겨울과 봄에만 근무해봤지만, 그동안 많은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날씨에 관한 다양한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시보기간에 사고(?)치면 정식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벌벌 떨기도 했지만, 처음 배울 때 확실히 가르쳐주시는 대장님과 언제나 딸 또는 동생처럼 아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무사히 시보기간을 마칠 수 있었다.

처음 기상청을 알게 된 후 막연하게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젠 점점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다.

앞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예보관’이 되고 싶다.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GISC 서울'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리며



권오용 / 정보통신기술과장

'GISC 서울' 정규운영을 시작하다

우리 기상청이 GISC(Global Information System Centre)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다. “GISC가 뭘니까?”라고 묻는 이도 있었고, 좀 안다는 사람조차도 “GISC 서울을 유치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라거나, “어차피 중국하고 일본이 운영할 테니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쓰면 되지, 굳이 주변 나라들(일본, 중국) 심기를 건드려가면서까지 유치할 필요가 있나요?”

흔히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고들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에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 이 부분이 말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이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즉 GISC 서울 유치에 성공하고(2012년 6월, 제64차 WMO 집행이사회, 제네바) 이제 정규운영을 시작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럼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최소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선 대한민국 기상청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한민국 기상청 = 기상기술 강국

먼저, 대내적으로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세계기상자료 확보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수치적으로 볼 때 약 18,000여종 정도로 증가했으니 기존의 5,600여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GISC 서울의 책임영역 구축이 완료되고 또 러시아, 미국 등 후발 GISC들이 정규 운영을 시작할 때쯤이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GISC 서울로 달라진 점은 ‘자료확보 증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기상청은 ‘기상기술 강국’이라는 명제가 통한다. 물론 그 저변에는 국가적으로 잘 발달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민간차원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의 공로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명성이 유지되다보면, 향후 기상기술 분야에서 민간업체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WMO 고위직 진출이라는 쾌거에 이어, 이제 실무라인에서도 바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WMO 기본체제위원회(CBS)에서는 여태 외부전문가 자격으로만 활동했었지만, 2012년부터는



솔직담백한 결혼이야기



손웅기

진주시 '도동삼겹살' 고기그릇 장남

진주시상대 서열 4위



이영임

창원시 딸 부잣집 이진사 덕 장녀

진주시상대 서열 3위

사랑이란 대체 뭘까? 결혼이란 건 꼭 해야 하는 걸까? 여기, 서로 먼저 솔로 탈출하겠다고 내기하던 진주시상대 두 주무관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 주무관은 33살 동갑에 대학 동기다. 과연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

'진주시상대 직원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2건 달성!

손 : 아이고~ 이계장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 와이카노? 징그럽대! 그냥 영임이라 불러라.

손 : 아입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이계장님 아닙니까?

이 : 너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손 : 누가 보면 우리 둘이 결혼하는 줄 알겠다. 하하.

이 : 말도 안 되는 소리! 감히 너가 나를?

손 : 하긴,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할 확률이 너가 시집 갈 확률보다 더 높은 줄 알았다.

이 : 장난하지 마라~

손 : 뭐라카노~ 진심이다!



사랑에 동당~ 그들의 달달한 연애기

이 : 하긴, 나도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다 인연이 있는가 보더라.
 손 : 그래, 네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 만났노?
 이 : 친구 소개로 만났지. 처음엔 내 짝인지 잘 몰랐는데, 몇 번 보니 잘 맞더라고~
 손 : 맞아.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코드가 잘 맞아야 연애가 되더라.
 이 : 그치, 둘이 짝짜꿍이 맞아야 돼! 넌 어떻게?
 손 : 나도 말이 잘 통해. 특히 유머코드가 맞더라고~
 이 : 우와, 그 분 정말로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손 : 으흐흐~~

아슬아슬 결혼 준비 뒷이야기

손 : 결혼 준비는 다 했나?
 이 : 거의 다 해간다.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니 조언 덕분에 잘했다.
 손 : 나도 니가 소개해준 덕분에 싸게 TV도 샀다 아이가~
 이 : 예비신부가 TV는 백해무익하다며 사지말자 했다더니?
 손 : 내가 누구야! TV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포트폴리오와 함께 열변을 토했지.
 이 : 그래서 사게 된 거야?
 손 : 아니...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때 난 단호박인 줄 알았다!
 이 : 뭐라카노~ 개그하지 마라!
 손 :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그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라고나 할까?
 이 : 애~쓰네!

결혼내기의 승자는 바로 손흥기 주무관!

이 : 안타깝다. 내가 너보다 결혼을 늦게 하다니!
 손 : 한 달 차이 갖고 무슨~ 근데 넌 딸이 좋냐, 아들이 좋냐?
 이 : 난 쌍둥이나 딸이었음 좋겠다. 넌 어떤데?
 손 : 나도 딸을 낳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딸이 생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애!
 이 : 그래, 넌 항상 딸을 갖고 싶다고 했지~
 손 : 근데 우리 집안내력이 아들이 많아서, 나뒀은 아들이 나올까봐 두렵기도 해.
 이 : 그래도 너 닮은 딸보단 나올 것 같은데?
 손 : 꼬응~ 고맙다!

대학에서 만난 이 주무관들은 삼포세대가 많은 요즘 시대에, 당당히 대학입시보다도 더 힘들다는 결혼입시(?)에 성공했다. **손흥기 주무관은 5월 18일, 이영임 주무관은 6월 22일에** 결혼한다. 예쁜 아이도 낳으며 항상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현식 / 인천기상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겠지?
벌써 성훈이가 군 입대를 하여 병영생활을 한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대한민국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치러야할 과정이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할 때 훈련을 받고 있을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쓰러워지는 마음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구나.

아빠도 봄에, 논산훈련소 물구덩이에서 낮은 포복을 하던 때가 있었다.
정말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견디고 견뎌야만 했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게 바로 이 국방의무다.
군대는 계급에 따른 엄격한 역할 분담과 지휘계통이 있고,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라서 힘든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단다.

아들아, 훈련병 시절부터 자대 전입 후까지의 그 3개월이 고비라고 하는 말이 있단다.
하지만 지금 겪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란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빠는 너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구나.
훈련도 즐기고, 교육도 즐기고, 모든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다시는 겪지 못할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피할 수 없는 군복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기는 수밖에 없다.
현재 훈련병이 하는 모든 생활과 훈련, 기합, 굴욕감, 동료애,
자유 없는 불편함... 그 모두를 견뎌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단다.
군복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아빠는 믿는다.

아들아, 사랑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27> 이상파랑

내일 만화

이야~ 엄청 좋네요!
바다도 예쁘고~

어서 와서
라면 먹자!

바다가 잠잠하다고
너무 안심해선 안 된단다.

네?

'이상파랑'
이라고 들어봤니?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높은 파도라고
말할 수 있지...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상파랑은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저기압의 이동속도와
바다에서의 파의 이동속도가 유사하고, 기압이 급격히 변화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동하는 경로에 수심이 얕은
해안이 존재하면, 전파되는 에너지가 누적되어 파도가
높아지게 돼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신
편이 좋네요....;

무섭네요... 갑자기
생기는 이상파랑을
알아낼 순 없나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상파랑의 감시와 예측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상청에선 연안방재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파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단다.
이상파랑 발생 원인을 규명한
예보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 안전해야 더
즐거운 법이지. ^^

청장 정책브리핑(4.22)

이일수 청장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출입기자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행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푸른 지구 만들기' 식목행사(4.4)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식목행사를 가졌다.



첫 여성 차장 탄생(4.12)

정부는 기상청 신임 차장에 조주영 기획조정관 전담직무대리를 승진 임용하였다. 기상청 최초의 여성차장이며, 최초 여성 공보담당을 역임한 바 있다.



제3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4.23)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날씨경영 인식 확산과 기상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여행, 교통, 조선 등 14개의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마음 화합의 장 개최(4.27)

직원들 사이의 친목과 기상청의 행복 증진을 위해, 계룡 종합운동장에서 기상청장배 축구대회가 열렸으며 제주지방기상청이 최종 우승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업무협의회(4.29)

여름철 위험기상에 따른 효율적 방재업무를 위해, 유관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여름철 기상전망을 들은 뒤, 방재대책 협조와 소통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상사업자 토론회(4.29)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간의 역할과, 기상기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1. 느닷없이 나타나는 높은 파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이상노랑 ② 이상빨강 ③ 이상주황 ④ 이상파랑
2. 승려들의 밥그릇 모양을 닮은 봉우리의 이름은?
① 비로봉 ② 바래봉 ③ 국망봉 ④ 연화봉
3. 측우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① 문중 ② 단종 ③ 장영실 ④ 세종대왕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① 문경새재
2. ② 탁구
3. ③ 친구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전호재(의정부) 2. 한지민(대전)
3. 김애란(광주) 4. 방성우(경북)
5. 권향주(목포)



퀴즈 정답은

5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승진	4.12	기상청		차장(차관급)	조주영
전보	4.16	기상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신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박수희
시보해제	4.1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사무관	김해연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김진석
		예보국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	이승우
전입	4.23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명규
	4.29	예보국	수치모델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병숙
승진	5.8	강원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이희상
		예보국	총괄예보관	부이사관	이미선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부이사관(과장)	임용한
		국가기상위성센터		부이사관(센터장)	권태순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장현식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술서기관	장근일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술서기관	박경희
전보	5.8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기술서기관	심재면
		기상청	운영지원과	기술서기관(과장)	전준항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기술서기관(과장)	구대영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김용상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용을 회복하고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바라보며 미소가 번집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의 고통을 던 일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자리 지원을 받아 직장에 출근하는
아침이 활기칩니다.

국민행복기금,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께
작은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 속 기후변화를 찾아라!

○ 공모주제

동일 장소의 **과거**와 **최근** 사진을 통해 “기후변화 현장”을 찾아!

○ 응모방법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기간 : 2013년 4월 29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홈페이지 접수(www.kma2013.co.kr)

제출자료

1. 약 20년 이상 차이나는 동일 장소의 사진 2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
 -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개인 소장사진, 인물·배경사진 등 제한 없음
 - 1차 심사 통과 작품은 원본 사진 제출
2. 출품자 연락처 :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3. 사진 설명(100~500자 이내)
 - 제목, 촬영일(연월일, 계절), 촬영장소
 - 과거와 최근사진에서 보이는 기후변화 내용 설명 등

사진규격

1. 1차 심사용 과거와 최근 사진 이미지(홈페이지 접수)
 - 10MB 이내 JPG 파일
2. 2차 심사용 사진 원본(우편 접수)
 - 과거사진 : 규격 제한 없음
 - 최근사진 : 3.5×5" 내외 이상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내역

1. 1차 심사 : 7월 9일(화)
(100여점 선정)
2. 2차 심사 : 7월 24일(수)
(42점 최종 선정)

	상 훈	작품수	상 금
금 상	환경부장관상	1명	100만원
은 상	기상청장상	2명	50만원
동 상	기상청장상	3명	30만원
가 작	기상청장상	6명	15만원
입 선		30점	5만원

※ 수상명, 작품수,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품작 활용

1. 사진전 등 기후변화 관련 행사 및 각종 기상청 홍보에 활용
2. '사진 속 기후변화 이야기' 사진 스토리집 제작 및 배포

○ 기타 유의 사항

1. 입선 이상 작품의 저작권은 기상청에 귀속되며, 초상권 책임은 출품자에 있음
2. 컴퓨터 그래픽 합성사진으로 입상·입선되었을 경우 시상 취소
3. 1차 심사 통과 작품은 7월 17일(수)까지 원본 사진을 우편(공모전 사무국)으로 제출

○ 안 내 : 070-8855-8499 (공모전 사무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kma2013.co.kr, www.kma.go.kr)